

다산포럼

공공성을 잃어버린 국가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사회가 해체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력은 공공성 실현에 대한 기대이다. 갈등 없는 사회는 없다. 갈등 없는 공공성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만 남아있다면 갈등이 사회를 해체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리가 없다. 국가는 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구이다. 개인들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은 언제나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 상태를 지향하지만, 구성원들의 욕망을 통제하여 반사회적 요소를 제거하고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은 공공성 실현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여 그 기대가 꺾이면 사회는 스스로 소멸할 길을 찾아 나선다.

근대 중국의 국학대사(國學大師)로 칭해지며 루쉰(魯迅)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장타이엔(章太炎)은 유가사상의 공사 구분론을 기반으로 '공(公)'을 욕망과 이익으로 규정된 '사(私)'를 등진(八) 형상으로 파악하였다. 유가사상에서 공은 하늘의 이치인 천리(天理)를 따르는 것이고, 사는 개인적 욕망인 인욕(人欲)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은 욕망과 이익의 반대편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보편적 도덕률이다. 공이 이익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므로 현재 많이 쓰이는 '공익

(公益)' 같은 개념이 장타이엔에게는 형용 모순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유가사상이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중세에도 '공'은 구두선에 불과했을 테지만, 적어도 개념적으로 공공성을 이익으로 저울질하는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공은 이익의 무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의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작에 맹자가 말했던 것이다. "하필이면 이익을 말하시는가(何必曰利)"

구두선으로라도 인정되던 공공성이 보란 듯이 부정되는 사회에서는 각자도생의 원심력만 작동하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공공성을 부정하면 인간은 반사회적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원리를 충실히 수호하자며 이익을 신성시하는 경향을 가속화하면서, 사회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붕괴되면 자본주의는 누구와 더불어 수호할 것인가.

사람이 먹는 빵을 만드는 업체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공장 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데 사용할 비용을 아껴서 그 빵 공장에서 빵 만드는 사람들이 빵 만드는 기계에 끼이고 빨려 들어가 여전히 죽고 다치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만든 빵을 여전히 사람들 먹으라고 시장에 내놓고 있다. 사람 살 집을 만드는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를 아끼느라 사람 살 수 없는 집을 만들고, 거기에 고용되어 할 수 없이 사람 살 수 없는 집을 만들던 사람들이 날마다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죽고 다친다. 세상 밝힐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관리자가 규정을 지켜주지 않아 홀로 깜깜한 작업장에서 일하던 동지는 사업장의 사고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대통령 만

나 달라했지만 끝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죽는다. 모두가 이익을 신성시하여 감히 제 이익과 남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반사회적 동물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들의 파괴적 이익 추구를 막을 힘이 있는 자들 역시 이익을 신성시하는 대열에 서면,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성인은 견디기 어려워 사표가 속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반사회적 동물들에게 고등학생을 내어주기도 한다. 특성화고를 졸업하려면 우선 필수로 되어 있는 실습 과정에서 죽지 않아야 한다.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위험한 기계 수리에 투입하여 생명을 거두고, 수업을 못하는 학생에게 배 밑의 이물질 제거를 지시하여 익사시키고, 고객들의 살인적 욕실에 노출시켜 자살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동물들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국가가 반사회적 동물들의 사적 이익에 조력하는 또하나의 반사회적 동물로 등장한 것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당을 가리지도 않는다. 그러고는 역대 정부도 인구가 감소한다고 아우성이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살아서 멀쩡히 일하러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서려는 청춘들도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사회는 방치하면서, 공공을 대표해야 하는 국가가,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낫지 않느냐고 공공재를 써서 광고한다. 이런 조롱이다. 공공성에 대한 조롱이고, 사회에 대한 조롱이다. 공공성과 사람 목숨과 사적 이익이 저울질 될 수 있다고 믿는 반사회적 동물들과 싸울 힘도 조롱을 받아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청춘 특특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도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김유나
동신대 방사선학과 2년

끼게 되고 그 결과 무기력감이나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 변화가 생기고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 감퇴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 및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확산이 되는 현상으로 스마트폰의 폐해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사회화가 중단되면서 더욱 이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팝콘 브레인 증상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팝콘 브레인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오프라인의 균형 잡힌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우선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영상매체는 대체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주된 관심 주제를 자동으로 이어볼 수 있게 제공하기 때문에 설정을 조정해 자동 재생 옵션을 꺼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자연이나 백색 소음 등 힐링 영상을 보거나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인데, 이와 함께 독서를 강하게 추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시대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도마에 오르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문해력이다. 글을 읽고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젊은 층이 급증하면서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해력 저하는 유아 때부터 스마트폰, 유튜브 등 디지털 기기와 영상 매체에 자주 노출된 영향이 크데, 짧은 영상과 메시지에

익숙해지다 보니 긴 글을 읽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만을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문해력의 퇴보는 학습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의 지적 기반을 허약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독서는 문해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독서를 시작하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다.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다. 어떤 장르든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자신의 독서 능력에 맞게 적절한 난이도의 책을 선택하면 된다. 자신의 능력보다 어려운 책을 고르게 될 경우 끝까지 읽지 못하고 덮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정한 시간에 꼭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이, 오래 읽기보다 자신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읽는 것이 독서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독서에 정해진 틀은 없다. 책을 읽다보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혼자 독서를 시작하기 어렵다면 독서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책 읽기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무엇보다 시작이 어렵다. 시작이 어렵다면 말이 있듯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달라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고

기후 위기, 댐 운영 해법을 찾아가다



김진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장

족으로 주암댐, 섬진강댐, 평립댐, 수어댐은 가뭄 심각 단계까지 발령되었다. 이로 인해 주암댐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0.3%까지 하락하여 광주·전남 지역과 여수·광양 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 달간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은 191mm의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다. 그 간 가뭄 극복을 위한 댐 용수 감량, 인공 댐-하천 연계 운영, 절수 등 정부와 민간의 전방위적 가뭄 대책 노력이 더해지며 주암댐은 300여 일이 넘는 가나간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뭄이 끝나자마자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총청 이남을 중심으로 최고 10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고, 전라권은 평년 대비 238% 수준인 831mm의 강우로 장마철 역대 1위 강우량 극값을 갱신했다. 즉 올해 5월까지 댐 용수 구축 운영 등 가뭄으로 목숨을 앓던 상황이 불과 2개월여 만에 홍수 대응체제로 댐 운영이 바뀐 셈이다. 이에 주암댐은 올해 홍수기에 5번의 수문 방류를 시행하며 국민 안전에 집중했다.

예측 가능했던 기후 패턴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할 숙제가 주어졌 것이다. 특히 댐을 포함한 수자원 시설 운영·관리자는 민감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고 물 복지를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K-water는 댐의 기후 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준비해 왔다. 먼저 충분한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뭄 발생시 용수 공급 안정성까지 고려한 댐별 적정 운영 수위를 홍수기 전반·후반으로 설정해 운영했다. 또한 댐 수문 방류시 하류 하천 상황을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모의·분석(Digital Twin)하여 최적의 방류량을 결정하는 과학적 물관리 시스템도 속도감 있게 도입했다. 그 결과 댐 하류 홍수 피해는 저감되었고 홍수기가 지난 현재 영산강 섬진강 유역 다목적댐 저수량을 예년 대비 약 130%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상 강우 발생 시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과 소통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댐 하류 관계기관, 주민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댐 운영 소통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홍수, 가뭄과 관련된 현안 사항을 지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댐 수문 방류가 예상될 경우 최소 하루 전에 댐 하류 지역민들께 미리 알려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댐 수문 방류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극복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실현은 K-water에 주어진 무거운 책무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댐 운영도 생물(生物)을 대하듯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社說

대우그룹, 희생절차 서둘러 피해 최소화 해야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4곳이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절도산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경제자총협회에 따르면 대우위니아 그룹 계열사 가운데 위니아전자, 위니아 전자 매뉴팩처링, (주)위니아, 대우플러스 등 4개 사가 최근 잇따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의 주력으로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위니아 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는 남양산단과 소촌산단 등 광주에 공장을 두고 있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이 만만치 않다. 가전은 광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인데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가 가진 매출의 22%를 차지할 정도다.

당장 광주에 있는 3개 계열사 직원만 600여 명에 달하고 성남에 공장을 둔 위니아전자까지 포함하면 4개 계열사의 협

력업체가 400여 개에 달해 직접 피해자만 3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 위니아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경영 위기를 겪다 12월부터는 생산라인 가동을 멈춘 상태로 지금까지 체불 임금만 700억 원에 이르고 납품 대금 미회수금도 1000억 원에 달한다.

지역경제 타격이 현실화되자 광주시와 금융기관 등 지역 경제계가 정책자금 지원 등에 나선지만 '인 발에 오줌누기식'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원이 서둘러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상업이 어제 서울회생법원에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시급성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사회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은 부실 기업을 무조건 회생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필요한 부실은 털고 살릴 것은 살려 지역 경제계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 해달라는 것이다.

활동 종료 앞둔 5·18조사위 유종의 미 거두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5·18조사위가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5·18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조사위원 임기는 12월 26일까지다. 결국, 최종 보고서를 심의·의결할 조사위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

조사위는 짚은 위원 교체, 내홍 등 자체적인 한계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심본 감안해 조사위원 임기 연장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위는 5·18 발표자, 행불자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사위가 작성할 5·18 최종 보고서가 정부가 공인하는 5월의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5·18의 진실을 충실히 담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 총 216건 중 166건 심의·의결됐으며, 116건은 조사 중이다. 조사위가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5·18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조사위원 임기는 12월 26일까지다. 결국, 최종 보고서를 심의·의결할 조사위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

조사위는 짚은 위원 교체, 내홍 등 자체적인 한계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심본 감안해 조사위원 임기 연장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위는 5·18 발표자, 행불자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사위가 작성할 5·18 최종 보고서가 정부가 공인하는 5월의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5·18의 진실을 충실히 담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작품을 바닥에 놓고 5m 짜리 대(사다리)를 타고서 출렁출렁하면 리듬이 생겨요. 그 리듬을 무당처럼 타 버립니다.”

지난해 6월, 서울 연희동 주택가에 자리한 기지재단에서 박서보 화백을 인터뷰했다. 건물 1층은 작품 전시실과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다. 전시실에는 제주 유채와 진달래, 개나리, 벚꽃, 단풍과 같은 자연의 색감을 담은 '컬러묘법(槪法)'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바깥 정원에는 날찍한 바위와 수양매 등 나무 몇 그루가 점점 자리하고 있어 단아한

을 받고 있다.

화백은 하루 14시간 이상 '연필 묘법' 작업에 몰두하던 20~80대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를 '수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에게 그림은 수신을 위한 수행의 도구라고 했다.

“그것(그림을 그리는 일)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 사이에 몇 번을 지우고 또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하고 수많은 반복하는 거죠. 결국은 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신(修身)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통해서 내가 수행(修行)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그걸 이해 못하면 내 그림 이해 못합니다.”

한국 현대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박서보 화백이 지난 14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화백은 생전에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해도 추락한다'라는 묘지명을 미리 새겨뒀다고 한다. 언제나 변화를 추구하고, 매너리즘을 경계하기 위해 다짐하곤 했던 문구라고 말했다. '캔버스 수행자' 단색화 거장이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젊은 예술인들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캔버스 수행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경 치 부 220-0652	예 항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